

##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세대의 자녀관련 인식 비교: 이상적 자녀 수,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 긍정적 자녀가치와 부정적 자녀가치를 중심으로\*

박 영 신<sup>†</sup>                      김 의 철                      김 미 숙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세대의 자녀와 관련된 인식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상적인 자녀 수,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 자녀가치를 중심으로 집단별 비교를 하였다. 또한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세대집단별로 현재의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녀가치 인식을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총 442명으로서, 유아 어머니 집단 221명과 그들의 어머니인 외할머니 집단 221명이었다.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35.36세, 63.27세였다. 측정도구는 김의철, 박영신, 권운은(2005)의 질문지에 토대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Cronbach  $\alpha=.78-.91$ 이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아 어머니는 2명을, 외할머니는 4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상적인 아들 수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아 어머니는 1명을, 외할머니는 2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둘째,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에서, 유아 어머니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는 인식을, 외할머니는 아들이 1명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였다. 또한 한 자녀만 낳을 때, 유아 어머니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외할머니는 반드시 아들을 원한다는 반응이 거의 반수에 가깝게 가장 많았다. 셋째, 외할머니가 유아 어머니보다 아들의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두 집단간에 딸의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넷째,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은 긍정적 자녀가치와 부정적 자녀가치에서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으로서, 유아 어머니는 외할머니보다 심리적 즐거움이나 행복과 같이 개인적 측면, 가족 결속력의 증진이나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가족관계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외할머니는 유아 어머니보다 가문을 잇는다는 노후대책과 같은 사회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다. 한편 자녀를 가지면 어려운 점으로서, 유아 어머니는 외할머니보다 부모역할 부담과 같은 개인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외할머니는 유아어머니보다 가정 불화나 가족관계 악화와 같은 가족관계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다. 다섯째, 현재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 자녀가치를 분석한 결과, 유아 어머니 집단 경우에 경제적 부담과 같은 부정적 자녀가치가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외할머니 집단 경우에는 가문을 이음과 같은 긍정적 자녀가치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자녀가치, 세대 차이, 자녀 수,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 출산율

\* 이 논문은 김미숙(2010)의 박사논문 데이터를 기초로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yspark@inha.ac.kr

### 한국사회에서의 낮은 출산율

한국 사회의 낮은 출산율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청(2011)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2010년 출생아수는 47만명으로서 합계출산율<sup>1)</sup>이 1.226명에 불과하다. 이를 40년 동안의 출생아 수(1970년 1,006,645명, 1980년 862,835명, 1990년 649,738명, 2000년 634,501명)와 합계출산율(1970년 4.53, 1980년 2.82, 1990년 1.57, 2000년 1.467)과 비교해 보면, 지표가 대단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것이다. 8개국을 비교하였을 때, 1970년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의 순서였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의 순서로서, 한국의 출산율이 8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UN, 2010).

이와같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과 반대로, 한국 어머니의 출산연령은 높아지고 있다. 평균 출산연령과 첫째아의 평균 출산연령 모두 2010년에는 최초로 30세가 넘었다(통계청, 2011). 연도별 평균 출산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 29.02세, 2005년에 30.22세, 2010년에 31.26세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첫째아의 평균 출산연령도 2000년에 27.68세, 2005년에 29.08세, 2010년에 30.10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어머니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면 그만큼 임신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어 출산율 감소에 영

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낮은 출산율은 미혼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을 통해서도 시사된다. 전국 미혼여성(20-44세)의 이상적 결혼연령에 대한 반응을 보면, 27세 이하라는 응답이 2005년에 30.6%였는데 2009년에 21.2%로 감소하고, 30-31세라는 응답은 2005년에 27.0%였는데 2009년에 34.0%로 증가 하였다. 또한 본인의 결혼계획연령에 대해서도 미혼여성들이 2005년에 28-29세가 32.7%로 가장 많았으나 2009년에는 27.9%로 감소하였고, 2009년에 30-31세가 35.6%로 가장 많았는데 2005년에는 26.1%에 불과하였다.

미혼 남성 가운데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2005년에 82.5%였으나, 2009년에는 75.7%로 감소하여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결혼계획 연령이 늦추어짐으로써(2005년 31.8세, 2009년 32.1세), 미혼 남녀 모두 결혼시기를 늦추고 있음을 보여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권혜진, 김윤정, 권수진, 박선아, 안영미, 오금숙과 이경숙(2011)이 대학생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심층면접한 결과, 출산에 대해 시간과 정성을 쏟는 투자형, 적극적인 계획없이 출산을 받아들이는 수용형, 출산을 꺼리거나 피하는 기피형의 세 유형이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과거와 같이 출산을 인생의 당연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본인이 선택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도전이 핵심범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혼자들의 출산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젊은이들이 인식했다면, 오늘날에는 결혼이나 출산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선택의 대상으로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미혼여성들은 갖는 것이 좋음이 61.5%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반드시 가져야함이 20.3%였지만, 없어도 무관함이 14.6%이고 모르겠음이 3.7%나 되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한다는 생각을 미혼여성의 1/5 정도만 하고 있고,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거의 1/5을 차지하였다(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이 남자 경우에 54.4%(2005년)에서 24.3%(2009년)로 감소하였고, 여자 경우에 42.1%(2005년)에서 24.0%(2009년)로 감소하였다.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도 감소하여 한 자녀에 대한 선호도(여성 15.5%→28.5%)는 높아진 반면, 두 자녀 이상을 원하는 비율은 낮아졌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인 요인보다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여러 자료들은 시사한다. 미혼여성에 비해 미혼남성이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에서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현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영향(보건복지가족부, 2009)으로 설명된다. 또한 중산층 가구가 출산을 더욱 꺼리는 경향도 경제적 측면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월평균소득의 100~140%(3인 가구 기준: 월 345만원~483만원)인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타 소득수준의 가구에 비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중산층이 자녀를 잘 키우려는 욕구는 매우 강한 반면, 이를 위한 투입비용은 지나치게 커서 출산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보건복지가족부,

2009)되었다.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와 신의진(2009)이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대생들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감(47.2%)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의 취업과 자기발전(11.5%), 여성의 출산 및 육아담당 책임에 대한 부담감(9.1%)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자녀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자녀 1인당 고정액수의 현금 지원(19.9%), 저렴한 보육시설 서비스의 확대(15.7%), 기업체의 육아휴직 등 기업의 협조(14.3%), 여성노동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14.0%)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국가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반응율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인 측면 외에, 여성의 일과 가정의 병행이 어려운 여건 또한 출산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취업여성의 39%가 결혼전후 일을 그만둔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31%)인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여성의 가사전담 비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벌이인 경우에 86.0%였고, 맞벌이인 경우도 67.3%로서, 아직까지는 한국 가정에서 가사 및 육아를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부인이 전담하는 비율이 높았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와같이 가사일은 기본적으로 아내의 몫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취업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고, 따라서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과거에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취업주부가 증가됨으로써 여성들에게 직업에서의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남순현(2009)이 중년 기혼여성들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이 낮고 일에 대한 만족이 높은 집단이, 성만족이 높고 일만족이 낮은 집단보다 심리적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조혜자와 방희정(2005)은 여성들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현상의 한 이유로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관계 역할을 지적하였다.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여전히 가사와 양육 등 가족에게 헌신하고 관계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성역할을 요구함으로써, 젊은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자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

낮은 출산율에 대한 사회 정책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모색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주리(2011)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출산의도는 부와 모 각각의 양육참여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가 출산의도를 갖고 계획하여 태어난 자녀 대해 부모들의 양육참여 수준이 더 높았고, 특히 어머니가 이러한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의 소비행동 특성을 분석한 부수현, 박하철과 한보라(2005)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효능감과 자녀가치 및 자녀양육방식이 부모들의 소비행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예컨대 자녀가치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부모들이 낮게 인지하고 있는 부모들보다 자녀들을 위한 지출과 소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출산과 관련된 주제가 사회학적인 관심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연

구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산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인식은 부모 자녀관계나 가족에 대한 가치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다양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 성영신, 황택순, 이영철과 박규상(1991)이 TV의 일반광고와 공익광고를 내용분석하여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부모 자녀관계에서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고 돌보아 준다는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세대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자녀의 독립심을 길러준다는 현대적 가족가치관보다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광고 속에서 아들에 대한 선호사상이 표현되고 있었다.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990년대 초의 한국 사회는 현상적인 면에서 많이 현대화되었으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것을 중요시하며, 전통과 현대적 가치관이 공존하는 양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철, 박영신과 권용은(2005)이 유아 어머니와 청소년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는 반응이 각각 56.1%, 61.5%로 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젊은 엄마 집단에서 과거에 비해 아들선호사상이 매우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자녀에 대한 인식 중에서 특별히 자녀가치 인식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자녀가치 연구는 1970년대부터 관심을 갖고 이루어져왔다(Arnold, Bulatao, Buripakdi, Chung, Fawcett, Iritani, Lee & Wu, 1975; Arnold & Fawcett, 1975; Fawcett, 1983).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9개 국가(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터키, 미국)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자녀가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세 요인이 경제적/도구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도구적 가치란, 자녀가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가사를 도울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를 돌보고 노후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가문을 이어가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가치를 의미한다. 심리적 가치는, 자녀를 통해 부모가 기쁨, 재미 등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개인적 차원의 가치이다. Kagitcibasi(1996)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특히 아들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심리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아들선호사상도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내에서도 자녀가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의철, 박영신과 권용은(2005)이 30대 초반의 유아 어머니 집단과 40대 초반의 청소년 어머니 집단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부모가 되어야 집단에서 위치가 분명해지고 인정 받는다는 것과 같은 관계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유아 어머니 집단은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와 같은 심리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유아 어머니 집단은 자유롭지 못하다와 같은 개인적 제약을 훨씬 강하게 지각하였다. 또한 노후에 아들이나 딸로부터 도움받기를 기대하는 정도에서도 세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자녀로부터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였다. 따라서 30대와 40대 어머니 집단은 자녀가치의 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김미숙, 김의철과 박영신(2007)은 유아 부모 집단의 자녀가치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를 위해 자유반응형 응답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녀를 앞으로 출산하려는 이유로서 형제간 의지, 아들을 원함, 가정의 화목이 대표적으로 지적되었는데, 아들을 원한다는 반응에 대해 아버지의 33.3%, 어머니의 27.8%가 높게 반응하였다. 자녀를 더 이상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아버지(42.8%)와 어머니(40.6%) 집단 모두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유아 부모 집단에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자녀출산 계획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에 대한 유아 부모집단의 인식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정생활과 관련된 행복감과 같은 개인적인 측면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김미숙, 박영신, 2006). 이러한 결과는 젊은 부부들이 갖는 긍정적 자녀가치로 심리적 만족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낸다.

자녀가치나 가족가치에서의 세대차이가 밝히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우조은, 김의철과 박영신(2008)이 대학생과 부모 세대집단별 자녀가치와 가족가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는 대학생 집단보다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으로써, 의지의 대상, 가문을 이음, 노후대책 등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대학생은 부모 집단보다 자녀를 가지면 어렵고 힘든 점으로써 개인적 성취의 제약, 여가생활의 제약, 직장생활의 제약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더욱 강하게 동의하였다. 고등학생과 부모 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을 비교한 오정숙, 박영신과 김의철(2007)의 연구에서도 차이가 확인됨으로써, 세대 집단별로 자녀가치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한편 자녀가치와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도 있다. Chang, Park과 Kim (2009)이 긍정적 자녀가치(심리적 즐거움, 가문을 이음, 의지의 대상, 노후대책)와 부정적 자녀가치(개인적 성취의 제약, 부모역할 부담, 경제적 부담)가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자녀가치는 자녀양육효능감,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같은 효능감 하위변인들과 정적 관계에 있었으나, 부정적 자녀가치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긍정적 자녀가치는 가정생활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부정적 자녀가치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노후부양에 관한 기대를 다룬 내용들도 자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김의철, 박영신과 권용은(2005)의 연구에서 청소년 어머니는 유아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로부터 노후에 도움받는 것을 기대하는 정도가 더욱 높았다.

물론 노후부양과 관련하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해줄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만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노후부양에 대한 태도가 있다. 예컨대 김민희와 홍주연(2010)은 대학생들의 부양의지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주의와 효의식이 높을수록, 관계성이 높을수록, 형제 수가 적을수록 부양의지가 높았다. 조성원(1996)은 성인 딸과 노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부양행동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즉 부양기대

감, 상호원조 및 접촉의 측면에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한기혜, 박영신과 김의철(2009)은 노부모 부양 인식에서의 세대차이를 검토한 결과, 노부모를 부양하면 좋은 점이나 감동이 되는 점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었지만, 세대간에 공통적인 점들도 밝혀졌다. 즉 노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를,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는 죄송한 마음을 가졌으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모시고 보살피 드리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낮은 출산율과 관련하여,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의 자녀와 관련된 인식을 비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는 많이 있지만, 모두 연령별 빈도나 평균 중심의 기술통계치가 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의 짝지은 자료로 토대로, 한국 사회의 기혼여성들이 한 세대에 걸쳐 자녀와 관련된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김의철, 박영신과 권용은(2005)은 유아 어머니와 청소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차이를 분석하고, 후속연구 과제로서 다양한 세대집단의 자녀가치와 가족가치를 비교할 필요를 제안한 바 있다. 유아 어머니와 그들의 어머니인 외할머니 집단은 한국 근현대사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삶의 경험이 크게 다르고, 이와같이 질적으로 다른 환경과 경험은 가치인식에서도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 유아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

의 짝지은 자료를 통해, 세대집단별로 한국 어머니 집단의 자녀관련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세대차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어머니 집단과 외할머니 집단간의 자녀관련 인식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짝을 이룬 세대 집단간의 자녀관련 인식에서의 차이는 세대집단별 출산율의 차이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면에서의 의미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세대의 자녀와 관련된 인식에서의 차이는 이상적인 자녀 수,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 자녀가치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이상적인 자녀 총수와 이상적인 아들 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는 일반적인 성별 선호도와 더불어, 한 자녀만 낳을 때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에서의 세대집단별 차이도 포함하고자 한다.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는 아들 및 딸이 해 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부모의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자녀가치는 긍정적인 자녀가치와 부정적인 자녀가치에서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 각각, 현재의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녀가치 인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자녀가치가 현재의 자녀 수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의 심리특성과 관련하여 가치관 중에서도 개인주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비교는, 이 두 집단의 자녀가치와 관련된 특성의 차이에 대한 결과와

관련하여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순형과 이영미(1997)의 연구에 의하면, 집합주의가 강할수록 가족주의가 강하며,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물질주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방 법

### 분석대상

본 연구를 위해 I광역시에 위치한 28개 유치원(20개 공립유치원, 8개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표집하였다. 총 1,000명 유아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711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는데, 유아 어머니 중에서 490명이, 외할머니 중에서 221명이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모두 회수되지 않은 질문지는 제외하고,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짝을 이루는 221쌍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대상은 총 442명(유아 어머니 221명, 외할머니 221명)이었다.

유아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5.36세(중앙치 35세, 최빈치 35세)였으며, 외할머니의 연령은 평균 63.27세(중앙치 63.00세, 최빈치 60.00세)였다.

유아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0.5%, 고졸 40.3%, 대졸 54.3%, 대학원 졸 4.5%, 무응답 0.5% 였으며, 외할머니의 학력은 초등졸 37.1%, 중졸 27.1%, 고졸 23.5%, 대졸 6.8%, 대학원졸 0.5%, 무응답 5.0% 였다. 그러므로 유아 어머니는 대졸이 과반수를 넘고, 고졸도 거의 반에 가까우므로, 응답자 대부분이 고졸 이상

이었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졸이었으며, 유아 어머니보다 학력이 낮았다.

가정경제수준에 대해서, 유아 어머니는 하 9.5%, 중하 24.0%, 중 58.4%, 중상 7.7%, 상 0.0%, 무응답 0.5%이었고, 외할머니는 하 11.3%, 중하 37.6%, 중 43.5%, 중상 4.5%, 상 0.0%, 무응답 5.4%이었다. 그러므로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지각은 두 집단이 유사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반수 내외였고, 그 다음으로 중하라는 응답이 많았다.

직업여부와 관련하여서, 유아 어머니는 직업 없었음이 4.5%, 과거에 직업 있었음이 52.0%, 현재 직업 있음이 42.5%, 무응답 0.9%였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직업 없었음이 42.5%, 과거에 직업 있었음이 38.5%, 현재 직업 있음이 15.8%, 무응답 3.2%였다. 그러므로 유아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4.5%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 직업 경험이 있으나, 외할머니는 거의 과반수가 전업주부였다.

####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김의철, 박영신과 권용은(2005)의 질문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유아 어머니용과 외할머니용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배경정보와 몇 개의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배경정보로 연령, 학력, 직업 여부,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표 1에 측정변인의 구성 및 신뢰도가 제시되어 있다. 자녀 수는 현재의 자녀 수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를 각각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이상적 자녀 수는 이상적인 자녀의 총 수만이 아니라 아들의 숫자도 기록하

게 하였다.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의 측정을 위해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5개의 답지(아들이 많아야 한다. 아들이 1명은 있어야 한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딸이 1명은 있어야 한다. 딸이 많아야 한다) 중에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를 1명만 낳는 경우에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과 관련하여, 3개의 답지(반드시 아들 원함, 아들 딸 상관없음, 반드시 딸 원함) 중에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치관 변인은 개인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은 Chan(1994)의 7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한 김의철, 박영신과 권용은(2005)의 질문지에서 2개 문항 즉 쾌락의 추구(즐거움), 용감함(모험, 탐험)을 삭제하고, 5개 문항만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에 대해 인생에서 그러한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가를 질문하고, 답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매우 중요하다'에 이르기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제작되었다. Cronbach  $\alpha = .81 \sim .88$ 로 양호하였다.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 변인은 노후에 성장한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7개 문항(예: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준다)으로 구성되었다. 이 변인은 김의철, 박영신과 권용은(2005) 질문지에서 Arnold와 Fawcett(1975)의 문항을 번역한 것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 제작하였다. 답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문항을 아들에 대한 기대와 딸에 대한 기대로 각각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0 \sim .88$ 로 양호하였다.

자녀가치는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을 측정

표 1. 측정변인 구성 및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문항구성	신뢰도			
			유아 어머니	외할머니	계	
자녀 수	현재의 자녀 수	1	-	-	-	
	이상적인 자녀 수					
	이상적인 아들 수	1	-	-	-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자녀성별 선호도	1	-	-	-	
	한 자녀만 낳을 때 자녀성별 선호도	1	-	-	-	
가치관	개인주의	1 3 5 7 9	.81	.88	.87	
노후부양 기대	아들의 노후부양 기대	1 2 3 4 5 6 7	.83	.88	.86	
	딸의 노후부양 기대	1 2 3 4 5 6 7	.80	.86	.83	
긍정적 자녀가치	개인적 측면	심리적 즐거움	1 11 21 31 41	.84	.83	.84
		행복	4 14 24 34 44	.87	.89	.88
	가족관계적 측면	가족 결속력의 증진	5 15 25 35 45	.88	.88	.88
		가족공동체의 형성	6 16 26 36 46	.82	.84	.83
	사회적 측면	가문을 이음	7 17 27 37 47	.87	.85	.87
		노후 대책	9 19 29 39 49	.89	.89	.91
부정적 자녀가치	개인적 측면	부모역할 부담	3 13 23 33 43	.78	.78	.78
		경제적 부담	4 14 24 34 44	.88	.85	.87
	가족관계적 측면	가정불화	5 15 25 35 45	.82	.83	.83
		가족관계 약화	6 16 26 36 46	.81	.81	.81
	사회적 측면	직장생활의 제약	8 18 28 38 48	.80	.84	.81
		사회활동 제약	9 19 29 39 49	.86	.88	.87

하는 긍정적 자녀가치와 자녀를 가지면 어려운 점을 측정하는 부정적 자녀가치로 구성되었다. 김의철, 박영신과 권용은(2005)은 Arnold와 Fawcett(1975)의 질문지에 문항을 추가하여 자녀를 갖는 이유 27개 문항과,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 21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긍정적 자녀가치로서 3개 요인(심리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부정적 자녀가치

로서 3개 요인(개인적 제약, 외부적 제약, 사회적 제약) 밝힌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토대하여, 이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직접 제작하였다. 답지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하였다.

긍정적 자녀가치에서 개인적 측면으로는 2개 하위변인 즉 심리적 즐거움(예: 아이가 자

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과 행복(예: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다)이 포함되었다. 가족관계적 측면으로는 가족 결속력의 증진(예: 자녀로 인해 부부관계가 더 가까워진다)과 가족공동체의 형성(예: 부모가 될 수 있다)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가문을 이음(예: 자녀가 있어야 대를 잇는다)과 노후대책(예: 노후에 의지할 수 있다)이 포함되었다. 6개 하위변인들은 각각 5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긍정적 자녀가치 하위변인 6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sim .89$ 로 양호하였다.

부정적 자녀가치도 긍정적 자녀가치와 동일한 세 측면으로 구성되었고, 총 6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측면으로는 2개 하위변인 즉 경제적 부담(예: 자녀양육비가 부담이 된다)과 부모역할 부담(예: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이 포함되었다. 가족관계적 측면에는 가정불화(예: 부부간에 자녀양육방식에 의견대립이 있다)와 가족관계 약화(예: 부부관계가 소홀하게 된다)가, 사회적 측면에는 직장생활의 제약(예: 자녀 때문에 직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과 사회활동 제약(예: 자녀 키우느라 사회활동하기가 어렵다)이 포함되었다. 하위변인들은 긍정적 자녀가치와 마찬가지로 각각 5개 문항들로 측정되었으며, 6개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8 \sim .88$ 이었다.

#### 실시방법

표집대상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허락받은 유치원 경우에, 유치원 어머니 회의나 모임에서 유치원 원장 또는 교사가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고, 질문지에 응답한 유아 어머니

들에게 유아의 외할머니용 질문지를 전달하여 외할머니들로부터 질문지 응답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과 질문지를 발송하여 질문지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유아의 외할머니들로부터도 질문지를 받아, 유치원에 적극 제출하도록 간곡히 부탁하였다. 유아의 외할머니 질문지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유아 어머니들의 유치원 자녀교육에 대한 강한 교육열 덕분에, 유치원에서의 적극적 부탁이 설득력 있게 작용하였다.

## 결 과

### 이상적 자녀 수와 아들 수에 대한 인식

세대 집단별로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표 2이다.  $\chi^2$  검증 결과, 집단별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아 어머니 경우에 2명이 53.4%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3명, 4명의 순서였다. 이에 비해 외할머니는 4명이 3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명과 3명이 비슷한 비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별로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인식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 어머니 집단은 2명을, 외할머니 집단은 4명을 이상적인 자녀 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으로써, 외할머니 집단이 자녀가 많은 것을 좋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 집단별로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쌍체  $t$ -검증한 결과도  $\chi^2$  검증 결과와 마찬가지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

표 2. 세대 집단별 이상적 자녀 수에 대한 인식 차이

자녀 수	유아 어머니	외할머니	전체
0	1 ( .5)	5 ( 2.4)	6 ( 1.4)
1	-	1 ( .5)	1 ( .2)
2	111 (53.4)	59 (28.0)	170 (40.6)
3	60 (28.8)	49 (23.2)	109 (26.0)
4	35 (16.8)	84 (39.8)	119 (28.4)
5	1 ( .5)	12 ( 5.7)	13 ( 3.1)
6	-	1 ( .5)	1 ( .2)
합계(%)	208 (100.0)	211 (100.0)	419 (100.0)

$\chi^2=51.15^{***}$ ,  $df=6$

표 3. 세대 집단별 이상적 아들 수에 대한 인식 차이

자녀 수	유아 어머니	외할머니	전체
0	8 ( 3.9)	8 ( 3.8)	16 ( 3.8)
1	140 (67.6)	78 (37.0)	218 (52.2)
2	58 (28.0)	114 (54.0)	172 (41.1)
3	1 ( .5)	10 ( 4.7)	11 ( 2.6)
4	-	1 ( .5)	1 ( .2)
합계	207 (100.0)	211 (100.0)	418 (100.0)

$\chi^2=44.20^{***}$ ,  $df=4$

한 차이가 있었다(쌍체  $t=-6.64$ ). 유아 어머니 집단( $M=2.62$ ,  $sd=.80$ )이 외할머니 집단( $M=3.17$ ,  $sd=1.08$ ) 보다 이상적 자녀수가 적었다.

표 3은 세대 집단별로 이상적인 아들 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chi^2$  검증 결과에 의하면, 집단별로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아 어머니 집단은 1명이 6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외할머니 집단은 2명이 5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유아 어머니보다 외할머니들이 훨씬 아들 수가 많아야 한다는 인식

을 하고 있었다.

세대 집단별로 이상적인 아들 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쌍체  $t$ -검증한 결과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쌍체  $t=-6.42$ ,  $p<.001$ ). 유아 어머니 집단( $M=1.25$ ,  $sd=.53$ )이 외할머니 집단( $M=1.60$ ,  $sd=.65$ ) 보다 이상적 아들 수의 평균 값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아 어머니 보다는 외할머니 집단이 자녀 수가 많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중에서 아들의 수도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세대 집단별로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chi^2$  검증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별로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유아 어머니 집단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가 54.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 ‘딸이 1명은 있어야 한다’(20.2%)는 반응이었으며, 근소한 차이로 ‘아들이 1명은 있어야 한다’(19.2%)는 반응이었다. 그 다음으로 ‘딸이 많아야 한다’(4.2%), 마지막으로 ‘아들이 많아야 한다’(2.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할머니는 ‘아들이 1명은 있어야 한다’(32.2%)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31.2%)가 두 번째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아들이 많아야 한다’(17.6%), ‘딸이 1명은 있어야 한다’(12.1%)의 순서였으며, ‘딸이 많아야 한다’(7.0%)는 반응이 가장 적었다.

표 5는 자녀를 1명만 낳을 때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유아 어머니 집단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는

반응이 82.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반드시 딸을 원함’(9.1%)이 ‘반드시 아들을 원함’(8.2%)보다 약간 더 많았다. 이에 비해 외할머니 집단은 ‘반드시 아들을 원함’(46.3%)이 반수에 가깝게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음’(44.9%)이 비슷한 비율로 두 번째였으며, ‘반드시 딸을 원함’(8.8%)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세대 집단별로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유아 어머니보다 외할머니가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

였다. 유아 어머니는 아들 딸 구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개인주의 가치관과 자녀의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

세대 집단별 개인주의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쌍체 *t*-검증 결과에 의하면, 개인주의 가치관 변인에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주의 가치를 대표하는 문항들인 신나는 생활, 창의성, 다양한 삶, 자유, 독립성들 각각에

표 4. 세대집단별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차이

	유아 어머니	외할머니	전체
아들이 많아야 한다	5 ( 2.3)	35 (17.6)	40 ( 9.7)
아들이 1명은 있어야 한다	41 (19.2)	64 (32.2)	105 (25.5)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115 (54.0)	62 (31.2)	177 (43.0)
딸이 1명은 있어야 한다	43 (20.2)	24 (12.1)	67 (16.3)
딸이 많아야 한다	9 ( 4.2)	14 ( 7.0)	23 ( 5.6)
합계	213 (100.0)	199 (100.0)	412 (100.0)

$\chi^2=49.47^{***}, df=4$

표 5. 세대 집단별 한 자녀만 낳을 때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차이

	유아 어머니	외할머니	전체
반드시 아들을 원함	18 ( 8.2)	100 (46.3)	118 (27.1)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음	181 (82.6)	97 (44.9)	278 (63.9)
반드시 딸을 원함	20 ( 9.1)	19 ( 8.8)	39 ( 9.0)
합계	219 (100.0)	216 (100.0)	435 (100.0)

$\chi^2=82.37^{***}, df=2$

표 6. 세대 집단별 개인주의 가치관 차이

영역	변인	문항	유아 어머니	외할머니	쌍체 <i>t</i>
			M (SD)	M (SD)	
가치관	개인주의		4.17 ( .59)	3.74 ( .75)	8.28 ***
		신나는 생활 (즐거운 경험)	4.36 ( .75)	3.83 ( .91)	7.89 ***
		창의성 (독특함, 상상력)	4.13 ( .83)	3.61 ( .94)	7.69 ***
		다양한 삶 (도전, 새로운 시도)	3.96 ( .86)	3.62 ( .94)	4.66 ***
		자유 (행동과 사고의 자유)	4.15 ( .74)	3.75 ( .88)	6.02 ***
		독립성 (자기의 목표와 흥미 선택)	4.26 ( .75)	3.87 ( .86)	5.77 ***

\*\*\*  $p < .001$

표 7. 세대 집단별 자녀의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 차이

변인	하위변인	유아 어머니	외할머니	쌍체 <i>t</i>
		M (SD)	M (SD)	
노후부양 기대	아들에 대한 기대	3.61 ( .65)	3.86 ( .67)	-4.20 ***
	딸에 대한 기대	3.67 ( .61)	3.70 ( .70)	-.47

\*\*\*  $p < .001$

대해 쌍체 *t*-검증을 시도한 결과,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 모두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개인주의 가치관 변인과 하위 문항들 모두에서 유아 어머니 집단이 외할머니 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유아 어머니가 외할머니 세대보다는 더욱 개인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은 세대 집단별로 자녀의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쌍체 *t*-검증 결과에 의하면, 세대 집단별로 아들에 대한 기대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딸에 대한 기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과 어려운 점

세대 집단별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 인식의 차이를 쌍체 *t*-검증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심리적 즐거움과, 행복 변인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유아 어머니가 외할머니보다 심리적 즐거움과 행복 변인 모두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가족 결속력의 증진과 가족공동체의 형성 변인 모두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은, 두 변인 모두에서 유아 어머니가 외할머니보다 높았다. 사회적 측면에서, 가문을 이음과 노후 대책 변인 모두, 개인적 측면이나 가족관계적 측면

표 8. 세대 집단별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 인식의 차이

영역	변인	유아 어머니	외할머니	쌍체 <i>t</i>
		M (SD)	M (SD)	
개인적 측면	심리적 즐거움	4.40 (.55)	4.22 (.61)	3.81 ***
	행복	4.42 (.57)	4.22 (.66)	4.33 ***
가족관계적 측면	가족 결속력의 증진	4.35 (.61)	4.08 (.70)	5.22 ***
	가족공동체의 형성	4.48 (.57)	4.27 (.64)	4.19 ***
사회적 측면	가문을 이음	3.32 (.92)	3.88 (.83)	-7.85 ***
	노후 대책	3.05 (.84)	3.80 (.81)	-11.28 ***

\*\*\*  $p < .001$

표 9. 세대 집단별 자녀를 가지면 어려운 점 인식의 차이

변인	하위변인	유아 어머니	외할머니	쌍체 <i>t</i>
		M (SD)	M (SD)	
개인적 측면	경제적 부담	3.80 (.79)	3.68 (.78)	2.13 *
	부모역할 부담	3.81 (.70)	3.62 (.74)	3.67 ***
가족관계적 측면	가정불화	2.67 (.81)	2.98 (.81)	-4.95 ***
	가족관계 약화	2.82 (.80)	3.04 (.75)	-3.60 ***
사회적 측면	직장생활의 제약	3.40 (.80)	3.34 (.80)	1.17
	사회활동 제약	3.51 (.85)	3.37 (.84)	2.49 *

\*  $p < .05$  \*\*\*  $p < .001$

의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유아 어머니 집단보다는 외할머니 집단의 평균이 훨씬 더 높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과 관련하여, 개인적 측면에서 심리적 즐거움이나 행복감,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가족결속력의 증진이나 가족공동체 형성의 면에서는, 유아 어머니 집단이 외할머니 집단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측면에서 가문을 잇는다는 노후대책의 면에서는 유아 어머니 집단보다 외할머니 집단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밝혀졌다.

표 9는 세대 집단별 자녀를 가지면 어려운 점 인식의 차이를 쌍체 *t*-검증한 결과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에서는 두 집단간에  $p < .05$  수준의 차이가 있었으나, 부모역할 부담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유아

어머니가 외할머니보다 경제적 부담 및 부모 역할 부담에서 평균이 높았다.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가정불화 및 가족관계 약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두 변인 모두에서 유아 어머니보다는 외할머니 집단이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사회적 측면에서, 직장생활의 제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사회활동 제약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아 어머니가 외할머니보다 더욱 사회활동 제약의 평균이 더 높았다.

따라서 자녀를 가지면 어려운 점으로 부모 역할의 부담이나 경제적 부담과 같은 개인적 측면에 대해, 사회활동 제약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 대해, 유아 어머니가 외할머니보다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가정불화나 가족관계 약화와 같은 가족관계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유아 어머니보다 외할머니 집

단이 더욱 강하게 인식하였다.

현재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 인식

현재의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 인식들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10과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은 유아 어머니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중다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은 긍정적 자녀가치의 6개 변인과 부정적 자녀가치의 6개 변인들로, 총 12개였다. 종속변인은 유아 어머니의 현재 자녀 수였다. 유의하게 투입되는 각 독립변인의 설명변량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은 Stepwise 방식으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12개 자녀가치의 변인들 중에서 긍정적 자녀가치 변인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부정적 자녀가치 중에 경제적 부담( $p < .05$ )만이 유의하였다.  $\beta = .14$ 로 정적인 값을 나타냄으

표 10. 유아 어머니 집단의 현재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 인식

	$\beta$	$R^2$
부정적 자녀가치: 경제적 부담	.14*	.02
부정적 자녀가치: 직장생활의 제약	-.14	.02
부정적 자녀가치: 부모역할 부담	-.10	.02
부정적 자녀가치: 가족관계 약화	.05	.02
긍정적 자녀가치: 심리적 즐거움	-.03	.02
긍정적 자녀가치: 가족 결속력의 증진	-.03	.02
긍정적 자녀가치: 가문을 이음	-.02	.02
부정적 자녀가치: 사회생활의 제약	-.01	.02
긍정적 자녀가치: 가정의 행복	-.01	.02
긍정적 자녀가치: 가족공동체의 형성	-.01	.02
긍정적 자녀가치: 노후대책	-.01	.02
부정적 자녀가치: 가정불화	.00	.02

\*  $p < .05$

표 11. 외할머니 집단의 현재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 인식

	$\beta$	$R^2$
긍정적 자녀가치: 행복	-.23 **	.02
긍정적 자녀가치: 가문을 이음	.17 *	.04
부정적 자녀가치: 가족관계 약화	-.13	.04
긍정적 자녀가치: 가족공동체의 형성	.09	.04
부정적 자녀가치: 가정불화	-.09	.04
부정적 자녀가치: 직장생활의 제약	-.09	.04
부정적 자녀가치: 사회생활의 제약	-.08	.04
긍정적 자녀가치: 심리적 즐거움	-.06	.04
긍정적 자녀가치: 가족 결속력의 증진	.06	.04
부정적 자녀가치: 경제적 부담	.05	.04
긍정적 자녀가치: 노후대책	-.03	.04
부정적 자녀가치: 부모역할 부담	-.02	.04

\*  $p < .05$  \*\*  $p < .01$

로써, 현재 자녀 수가 많은 유아 어머니들일수록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은 외할머니 집단만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10의 유아 어머니 집단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다회귀분석에 총 12개의 독립변인(긍정적 자녀가치 6개, 부정적 자녀가치 6개)이 포함되었으며, 종속변인은 외할머니의 현재 자녀 수였다. 표 10과 동일하게 Stepwise 방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12개 자녀가치의 변인들 중에서 유아 어머니 집단과 달리, 부정적 자녀가치변인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긍정적 자녀가치 중에 행복( $p < .01$ )과 가문을 이음( $p < .05$ )의 두 개 변인이 유의하였다. 행복은  $\beta = -.23$ 로서 부적의 계수를, 가문을 이음은  $\beta = .17$ 로 정적인 계수를

나타냄으로써, 현재 자녀 수가 많은 외할머니 들일수록 별로 행복하지 않았으나, 가문을 잇는다는 긍정적인 자녀가치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과 관련하여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의 자녀와 관련된 인식을 비교하였다.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의 이상적 자녀 수에 대한 인식,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 긍정적 자녀가치와 부정적 자녀가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세대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별로 현재의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녀가치 인식을 분석하였다.

자녀 수,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 노후 부양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아 어머니는 2명을, 외할머니는 4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표 2 참고). 이상적인 아들 수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아 어머니는 1명을, 외할머니는 2명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표 3 참고).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도에서, 유아 어머니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는 인식을, 외할머니는 아들이 1명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였다(표 4 참고). 또한 한 자녀만 낳을 때, 유아 어머니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외할머니는 반드시 아들을 원한다는 반응이 거의 반수에 가깝게 가장 많았다(표 5 참고). 심리특성으로서 개인주의 가치관은 유아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단보다 더 높았다(표 6 참고). 그러나 아들의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는 외할머니가 유아 어머니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두 집단간에 딸의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표 7 참고).

이 연구에서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상적 자녀 수에 대한 반응 결과를 보면, 2명이 53.4%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삼익 외(2009)의 연구에서 전국 기혼여성(20-44세)을 표집하여 이상적 자녀 수를 분석한 결과도 2명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조희금, 송혜림, 박정운, 권태희, 김경화, 김주현, 김혜영, 윤소영, 윤진숙, 이진숙과 정민자(2010)가 이상적인 자녀 수를 연령별로 분석하였을 때, 30대는 2명(71.6%) 1명(15.8%) 3명(10.4%) 4

명 이상(1.9%)의 순서로, 60대는 2명(45.0%) 3명(32.9%) 4명 이상( 19.3%) 1명(2.7%)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30대와 60대 모두 2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30대는 60대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적은 수의 자녀를 이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전국 통계 결과들을 볼 때, 이 연구에서 비록 제한된 표집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전국 표집의 결과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표집이 제한적이었지만, 이상적 자녀 수 및 자녀의 성별 선호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치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 자녀가치와 부정적 자녀가치에서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으로서, 유아 어머니는 외할머니보다 심리적 즐거움이나 행복과 같이 개인적 측면, 가족 결속력의 증진이나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가족관계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외할머니는 유아 어머니보다 가문을 잇는다는 노후대책과 같은 사회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다(표 8 참고). 한편 자녀를 가지면 어려운 점으로서, 유아 어머니는 외할머니보다 부모역할 부담이나 경제적 부담과 같은 개인적 측면 및 사회활동 제약과 같은 사회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외할머니는 유아어머니보다 가정불화나 가족관계 악화와 같은 가족관계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다(표 9 참고).

또한 현재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 자녀가치를 분석한 결과, 유아 어머니 집단 경우에 경제적 부담과 같은 부정적 자녀가치가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표 10 참고). 반면에 외할머니 집단 경우에는 가문을 이음과 같은 긍정적 자녀가치가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표 11 참고).

자녀가치와 관련된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심리적 행복을 주는 존재로서 자녀, 자녀출산을 저하의 요인으로서 경제적 부담, 가문을 잇는다는 전통적 자녀가치의 쇠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세대집단별 의미있는 차이는 자녀가치나 노부모부양을 포함하는 가족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Ahn, Park, & Kim, 2011; Han, Park, & Kim, 2010) 확인된 바 있다.

#### 심리적 행복을 주는 존재로서 자녀

외할머니 집단에 비해 유아 어머니 집단은 자녀가 있으면 심리적 즐거움이 있고 더욱 행복하다는 개인적인 측면이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으로 특별히 부각되었다(표 8 참고). 즉 유아 어머니들일수록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있다든가,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든가, 자녀가 있으면 삶에 활기가 있다든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이 있다든가, 자녀가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는 생각을 외할머니 집단보다 더 많이 하였다.

유아 부모집단이 지각한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에 대한 자유응답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김미숙, 박영신, 2006)에서도, 가정생활과 관련된 개인적인 행복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유아 어머니 집단만이 아니라 유아 아버지 집단에서도 동일한 반응경향을 보였다(Kim, Kim, Park & Baak, 2009).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젊은 여성들의 자녀

가 주는 심리적 즐거움과 행복에 관한 긍정적 자녀가치는, 자녀가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이고 도구적인 가치의 면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심리적 가치가 훨씬 의미있음(Kagitcibasi, 1996)을 확인해 주고 있다.

자녀가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가 의지가 된다는 사실은 다른 자료들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족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조희금 외, 2010),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건강, 돈, 일, 자녀, 배우자, 가정생활의 순서로 자녀가 포함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역시 자녀도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반응이 5점 척도에서 4.0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와같이 유아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단에 비해 개인적 측면의 심리적 행복이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으로 부각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성인 여성들 경우에 노인 여성 세대에 비해 훨씬 개인적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도 유아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단보다 심리특성으로서 개인주의 가치관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점(표 6 참고)도 이와 관련된다.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을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과 부모세대 집단별(우조은, 김의철, 박영신, 2008), 고등학생과 부모세대 집단별(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 자녀가치 인식에서 차이가 있음이 밝혀져 왔다. 그리고 자녀가치 인식의 차이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심리특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들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예컨대 진보지향가치는 청소년이 높았으며, 보수지향 가치는 노인이 가장 높았고, 또한 노인들이 가장 전통지향 역할행동을 많이 하는 차이가 있었다. 우조은, 김의철과 박영신(2008)의 연구에서 세대 집단별 가족가치를 비교하였을 때, 대학생 집단은 보다 개인주의가치관을 지향하였다면, 부모 집단은 보다 전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차이가 있었다.

#### 자녀 출산율 저하의 요인으로서 경제적 부담

유아 어머니 집단에서 이렇게 자녀를 가지면 심리적인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다는 반응이 외할머니 집단보다 더욱 의미있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어머니 집단의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러한 긍정적 자녀가치의 좋은 점을 부정적 자녀가치의 힘든 점들이 상쇄하고 있고, 상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 자녀가치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아 어머니들의 출산율을 낮추는 부정적인 자녀가치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 유아 어머니 집단의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 인식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6개의 긍정적 자녀가치와 6개의 부정적 자녀가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모든 변인들이 제외되고, 부정적 자녀가치 중에서 경제적 부담만이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으로 포함되었다(표 10 참고). 즉 현재 자녀 수가 많은 유아 어머니들일수록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기혼여성들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경제적 부담에 있음을 보여준다. 조희금 외(2010)의 자녀양육에 대한 분석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항목이 5점 척도에서 3.7점으로 다른 항목들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연령대별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30대가 60대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훨씬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향후 자녀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를 10가지 제시하였을 때, 그 중에서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라는 이유에 대해 30대의 44.2%가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기혼여성만이 아니라 기혼남성들도 자녀양육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자녀출산 계획 기피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유아 어머니만이 아니라 유아 아버지 집단도, 자녀를 더 이상 출산하지 않으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자유반응형 응답에서 확인된 바 있다(김미숙, 김의철, 박영신, 2007).

이삼식 외(2009)가 전국의 기혼여성(20-44세) 집단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받는 자녀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자녀 취학상태별로 정리한 결과는, 자녀가 미취학 상태에서 237,000원, 초등학교 316,000원, 중학교 427,000원, 고등학교 553,000원이 소요되고 있었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는 증가하여, 2009년의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 16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가 333,000원, 고등학교 86,200원이었다. 그리고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은 자녀 수 1명일 경우 13.3%, 2명일 경우 18.9%, 3명 이상일 경우 20.0%로서, 사교육비가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녀교육비와 자녀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은 유아 어머니와 같은 가임 여성들의 출산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대생들 경우에도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신의진, 2009). 그러므로 기혼여성만이 아니라 미혼여성들도 자녀출산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가임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출산을 저하현상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은 미혼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이유를 응답한 결과들(이삼식 외, 2009)로부터 시사된다. 미혼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이유 9개 중에서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이유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53.3%)이었다. 그 다음으로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주거공간 부족(43.5%),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40.1%)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같이 높은 찬성율을 보인 이유들이 모두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이유는 자녀 양육비였다.

이와같이 기혼여성이나 미혼여성이나 모두, 가임연령에 있는 여성들이 자녀출산을 경제적인 부담과 결부지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낮은 출산율의 중요한 심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문을 잇는다는 전통적 자녀가치의 쇠퇴

이 연구에서 유아 어머니 집단이 외할머니 집단보다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으로 심리적 즐거움과 행복을 더욱 강조하고, 개인주의 가치관이 더욱 강하게 나온 점은, 자녀를 통해 가문을 잇는다는 하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가 유아 어머니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순형과 이영미(1997)의 연구에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가 가족주의와 더욱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실제로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유아 어머니 집단은 외할머니 집단보다 가문을 잇는다는 노후대책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자녀가치가 의미있게 낮았고, 오히려 심리적 즐거움이나 행복과 같은 개인적 측면 및, 가족 결속력의 증진이나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가족관계적 측면의 긍정적인 자녀가치가 의미있게 높았다(표 8 참고). 여기에서 가문을 잇는 것 등과 관련된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자녀가치가, 외할머니 집단보다 유아 어머니 집단에서 현저히 낮은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이삼식 외(2009)의 연구에서 전국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찬성 11.5%, 대체로 찬성 36.5%, 별로 찬성 않음 37.4%, 찬성 않음 14.6%로서, 찬성 않음에 대한 반응율이 더욱 높았다. 반면에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 42.0%, 대체로 찬성 49.1%, 별로 찬성 않음 8.4%, 찬성 않음 0.5%

로서, 찬성의 비율이 현저히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유아 어머니 집단이 가문을 이음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자녀가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김의철, 박영신과 권용은(2005)의 자녀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유아 어머니 집단이 청소년 어머니 집단보다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낮았던 결과도, 이 연구에서 유아 어머니 집단이 외할머니 집단보다 자녀의 사회적 가치가 낮은 결과와 일치한다. 즉 한국 사회의 젊은 어머니들일수록 나이든 어머니들보다 자녀를 낳아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집착이 약하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와같은 자녀와 관련된 가치의 변화는, 젊은 엄마들일수록 아들을 특별히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 외할머니 집단 경우에 아들이 1명은 있어야 한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유아 어머니 집단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하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표 4 참고). 전국을 표집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에서도(이삼식 외, 2009), 기대하는 자녀의 성별 선호에 대해 딸아들 구별없이(66.1%), 딸아들 구별해서(31.3%), 모르겠음(2.6%)으로 미혼 여성들이 응답한 바 있다. 미혼 남성들 또한 이와 거의 비슷한 반응율을 보임으로써(딸아들 구별없이 60.6%, 딸아들 구별해서 36.2%, 모르겠음 3.2%),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경우에 자녀 성별에 대한 집착이 약화되어, 그들의 부모세대나 조부모 세대에 비해 아들선호도 사상이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맺음말

최근 한국사회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 어머니와 외할머니 집단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심리특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세대 집단별로 자녀가치 인식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여성들의 이러한 심리특성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팽배한 저출산 현상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부정적인 자녀가치로는 유아 어머니 집단들이 느끼는 자녀양육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자녀를 적게 가지려는 핵심적 이유로 부각되고, 긍정적인 자녀가치로는 외할머니 세대가 지니고 있는 가문을 잇는다는가 하는 한국 전통사회의 자녀와 관련된 가치인식들이 젊은 유아 어머니 세대에서는 약화되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겠다는가 자녀를 많이 가져야겠다는 인식이 감소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된 결과는 아들선호도가 확실히 드러났던 20여년 전의 가족가치관 연구 결과(성영신, 황택순, 이영철, 박규상, 1991)와는 다르다. 그러나 자녀양육과정에서 교육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현재의 부모들이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강한 관심을 갖고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로 나타나는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는 1990년대 초에서 2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현상적인 면에서의

현대화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국 부모의 토착적인 심리에서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가 진보지향가치나 보수지향가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도, 다른 가치보다 가정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김의철, 박영신, 김명연, 이진우, 유호식, 2000)도, 한국 사회에서 변화하면서도 동시에 공존하는 전통가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 연구가 갖는 몇가지 제한점 및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머니와 그들의 외할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자녀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유아의 아버지나 외할아버지와 같은 남성가족원의 의견은 배제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아버지나 외할아버지와 같은 남성가족원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해서도 분석을 추가한다면, 여성편향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합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보완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세대 집단간 자녀가치 인식의 차이가, 전국 규모의 표집에서 확인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에 대한 일반화를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통제변인에 대한 고려와 관련된 측면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적 자녀수, 자녀의 가치나 노후부양 기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예: 현재 자녀수, 가구의 소득수준, 학력수준, 맞벌이 여부 등)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집단간 비교가 이루어졌다. 후속연구에서는 영향력있는 통제변인들을 분석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현재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력 높은 독립변인의 선정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치 하위변인들 중에 어떠한 변인이 현재의 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상대적인 설명력의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tepwise 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자녀가치의 하위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변인들의 전체 설명변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인으로 자녀가치의 하위변인들만 투입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녀가치의 하위변인들 간의 공선성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후에 보다 설명력이 높은 다양한 독립변인들을 함께 투입하고, 자녀가치의 하위변인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유사한 하위변인들끼리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국가 차원에서 많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한 정책 중의 한 예로 고선주(2010)는 가족과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가족내 자녀양육 지원으로 2010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아이 돌보미 사업, 남성의 자녀돌봄 참여, 가족 친화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family day, 지역사회 양육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지적되었다.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최근 한국 사람들의 가치인식 변화라는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시각에서의 근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태연(2010)은 미혼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토대하여, 미혼이 한 두 요인에 의한 산물이기보다는 개인 및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총체적 산물임을 시사하였다. 최봉영(2010)은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는 일이 문화나 시대에 따라서

매우 다름을 지적하고, 한국 문화에 토대한 출산과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과중하게 느끼는 것은 자녀에 대한 강한 교육 열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열은 자녀의 성취를 부모 삶의 성공으로 공유하는 토착적인 자기인식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희생과 책임을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로 받아들인다(Kim & Park, 2000). 한국 문화에 토대한 결혼과 출산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만이 아니라 자녀출산과 가족 형성의 문화적 함의에 대한 관심과 통찰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을 및 자녀가치 인식의 변화에 대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고선주 (2010). 저출산 정책: 가족과 지역사회 내의 돌봄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문제 심리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31-60.

권혜진, 김윤정, 권수진, 박선아, 안영미, 오금숙, 이경숙 (2011). 대학생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 도전으로 바라보는 출산. 청소년학연구, 18(1), 175-200.

김미숙 (2010). 자녀가치와 가족가치에 대한 인식: 유아 부모와 외할머니 집단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숙, 김의철, 박영신 (2007). 유아 부모집단의 자녀가치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자녀

를 돌보는 사람과 기관, 출산 계획 이유.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496-497.

김미숙, 박영신 (2006). 자녀가치에 대한 토착심리: 한국 성인이 자녀를 가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340-341.

김민희, 홍주연 (2010). 대학생들의 부양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성역할 특성과 가족주의 가치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529-546.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09-142.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남순현 (2009).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비교. 인간발달연구, 16(1), 197-222.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부수현, 박하철, 한보라 (2005). 양육효능감과 자녀가치 및 자녀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부모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98-299.

성영신, 황택순, 이영철, 박규상 (1991). TV 광고에 나타난 가족 가치관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87-295.

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 고등학생과 부

- 모 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327-353.
- 우조은, 김의철, 박영신 (2008). 세대집단별 자녀가치와 가족가치의 차이 분석: 대학생과 부모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470-471.
-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신의진 (2009).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93-108.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9-83.
- 이순형, 이영미 (1997). 청소년의 가치지향과 생활만족의 관계: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물질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4(1), 1-24.
- 이주리 (2011). 출산 의도 및 부모 양육참여와 영아 발달 간 관계. *인간발달연구*, 18(2), 43-57.
- 정태연 (2010). 미혼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61-71.
- 조성원 (1996). 어머니와 딸: 부양행동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 딸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창간호, 118-127.
- 조혜자, 방희정 (2005).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95-112.
- 조희금, 송혜림, 박정윤, 권태희, 김경화, 김주현, 김혜영, 윤소영, 윤진숙, 이진숙, 정민자 (2010). 2010년 제 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0-15.
- 최봉영 (2010). 결혼과 부모 되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1-18.
- 통계청 (2011). 2010년 출생통계.
- 한기혜, 박영신, 김의철 (2009). 노부모 부양 인식에서의 세대차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그들의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90-191.
- Ahn, J. Y., Park, Y. S., & Kim, U. (2011).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taking care of elderly parents: Generational difference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arents.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of Asian Association of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p.235. December, 22-23. Bali, Indonesia.
- Arnold, F., Bulatao, R. A., Buripakdi, C., Chung, B. J., Fawcett, J. T., Iritani, T., Lee, S. J., & Wu, T. S. (1975). *The Values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Volume 1*.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Arnold, F. & Fawcett, J. (1975). *The Values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Honolulu: East West Population Institute, East-West Center.
- Chan, D. K. S. (1994). COLINDEX: A Refinement of three collectivism measur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G.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Chang, W. G., Park, Y. S., & Kim, U. (2009). Parental support, child-rearing and values of children among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specific focus on self-efficacy and life-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the 8th Biennial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 of Social Psychology. p. 319, December 11-14, New Delhi, India.
- Fawcett, J. T. (1983). Perceptions of the Values of children: Satisfaction and costs. In R. Bulatao, R. D. Lee, P. E. Hollerbach, & J. Bongaarts (Eds.),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Vol. 1, pp. 347~369).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Han, K. H., Park, Y. S., & Kim, U. (2010). Taking care of elderly parents: With specific focus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Paper presented at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ndigenous & Cultural Psychology. p. 318. July 24-27. Yogyakarta, Indonesia.
- Kagitcibasi, C. (1996).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across cultures: A view from the other sid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im, M. S., Kim, U., Park, Y. S., & Baak, S. Y. (2009). Value of children among parents of infants in Korea: With specific focus on positive and negative reasons for having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8th Biennial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 334, December 11-14, New Delhi, India.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Zeitschrift fu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UN (2010). <http://esa.un.org/unpp>. 주요국가의 출산율 비교.
- 논문투고일 : 2012. 1. 24.  
1차 심사일 : 2012. 2. 11.  
게재확정일 : 2012. 2. 23.

##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Children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and Maternal Grand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Ideal Number of Children, Gender Preference, Expectation Old Age Security and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of Children**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Mi-Sook Kim**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attitudes toward children among mothers young children and maternal grandmothers,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gender preference, old age security and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of children. A total of 442 respondents, consisting of 221 young mothers (average age of 35) and 221 maternal grandmothers (average age of 63) completed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Kim, Park and Kwon (2005). The reliability of the scales ranged from Cronbach  $\alpha$  of .78 to .9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young mothers reported that they would prefer two children, while grandmothers reported that they would prefer four children. As for the ideal number of male child, young mothers reported that they would prefer that they would prefer one son, while grandmothers reported two sons. Second, as for the gender of the child, young mothers did not show a gender preference, while grandmothers stated that at least one child should be a son, especially if it is the only child. Third, grandmothers had higher expectation of old age security in their male child than young mothers but two group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for the female child. Fourth, as for positive values of children, young mothers were more likely to emphasize personal aspects (i.e., psychological pleasure and happiness) and family cohesiveness, while grandmothers were more likely to emphasize social aspects (i.e., continuing the family line and old age security). As for negative values of children, young mothers were more likely to emphasize personal aspects (i.e., parental role and responsibility), while grandmothers were more likely to emphasize social aspects (i.e., family conflict and relationship). Fifth, as for factors that influenced the number of children that they decided to have, young mothers were more likely to report negative values of children (i.e., financial constraints), while grandmothers were more likely to emphasize positive values of children (i.e., continuing the family line).

*Key words* : Values of children, generational differences, number of children, gender preference, old age security, fertility rate